

# 중 양쯔강 유출량 급증... 제주바다 '위기'

### 현지 6월부터 집중호우로 초당 6만7000t 이상 유출 고수온·저염분수 제주 유입 우려... 또 “감시 강화” 1996년·2016년 저염분수 유입으로 마을어장 피해

중국 양쯔강 유출량이 평년보다 급증해 제주바다에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중국 양쯔강 유출량이 평년보다 많은 초당 6만7000t을 초과함에 따라 사전 유입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중국 양쯔강 하구 대통(大通) 지역 유출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난 8일 기준

평년 초당 4만4000t 대비 약 52% 증가한 초당 6만7000t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고수온·저염분수가 유입됐던 2016년 6만5000t보다 2000t 가량 많은 수준이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6월 중순부터 중국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장기간 위치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해 양쯔강 유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1.6℃ 상승하고 평년대비 강한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제주 연근해 표층수온이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쯔강 저염분수는 고수온을 동반하면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저염분수 유입대비 비상상황반을 편성해 서남부 50마일 해역 광역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수온·저염분수가 10마일 해역까지 유입될 경우 마을어장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해 유입 상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수온·저염분수 이동경로를 예측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양관측정보 모델링을 통한 이동경로 예측시스템을 운영해 고수온·저염분수 이동 예측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부터 광역무인 해양관측장비(Wave Glider)를 운영해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1996년에 대정·한경 마을 어장에 고수온·저염분수가 유입돼 약 6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8월에도 고수온·저염분수가 유입돼 일부 어장에서 수산생물이 폐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농경지 여름 풍경... 노지수박 수확 11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 밭에서 수박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강희만기자

## 교육부- 시도교육감協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교원을 위해 올해 실시될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유예됐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속적인 유예 요청이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여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1년째 매년 시행되는 것으로,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된다면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 시장공급 전환

### 정부 “마스크 또 대란시 수량제한 등 조치 계획”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과 더불어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제주도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 제도가 종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건용 마스크 유통 방식을 시장공급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의외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월 말 시장에 마스크 품귀 현상, 매점매석, 가격 폭등 등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때부터 마스크 유통은 정부가 통제하는 공적 공급 체제로 전환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됐다.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12일 시장 공급 체제로 전환됐지만 정부는 다시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 ‘제주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결과 100명중 7명 “자해 경험 있다” 충격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배 “가장 자해하고 싶을때는 친구들과 사이 안 좋을 때”

제주 청소년들의 자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9 제주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자해·자살, 비행 등 청소년 위기 문제가 꾸준히 대두됨에 따라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6개교·중학교 8개교·일반계 고등학교 7개교·특성화고 4개교 등 총 3571명과 '학교 밖 청소년' 158명을 합한 3729명에게 설문지를 작성해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729명 가운데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4%인 275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10.1%(184명)로 4.8%(91명)를 기록한 남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16%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8.2%, 특성화 고등학생 7.4%, 초등학생 6.9%, 일반계 고등학생 5.5%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어려운 편' 13.8%, '매우 잘 사는 편' 7.2%, '보통' 7%, '잘 사는 편' 6.1%였다.

자해 횟수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1~2회에 그친 비율이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5회 32.1%, 주1~2회 12%, 거의 매일 8%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3729명 가운데 4.7%인 179명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자해·자살 조장 음악 및 콘텐츠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 기반을 토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지역사회 기반의 자해 청소년 개입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 13~14일 돌풍 동반 많은 비 내린다

### 남부·산지 시간당 30~50mm 오는 18~19일 다시 비날까

돌풍을 동반한 많은비가 14일까지 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에서 만들어진 강한 남풍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북서쪽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비는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12~14일 누적 최고 200mm, 북부는 50~100mm로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13~14일 바람도 초속 20m 이상으

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정체전선은 14일 남하하면서 15~17일에는 비가 그쳤다 북상하면서 18~19일 사이에 다시 비를 뿌릴 전망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

**祝**  
CONGRATULATIONS

**就任**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안동우** **김태엽**

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협운영협의회 의장 이창철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변대근**

**제주시지역농축협운영협의회 의장 김군진 · 서귀포시농협운영협의회 의장 김성범 · 제주특별자치도축협운영협의회 의장 강승호**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	함덕농협조합장 현승중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	한경농협조합장 김군진	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
김녕농협조합장 오충규	구좌농협조합장 윤민	애월농협조합장 김병수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	대정농협조합장 이창철	안덕농협조합장 유봉성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	효돈농협조합장 백성익	위미농협조합장 김영근	남원농협조합장 김문일	표선농협조합장 고철민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강석보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제주축협조합장 강승호	서귀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NH농협은행 제주영역본부장 강승표